2024 드영미술관 특별기획전시

2024. 5. 2(목) ~ 7.23(화)

無等

무등샤워

SHOWER

강미미 KANG MI MI

김치준 KIM CHI JUN

디륵 플라이쉬만 DIRK FLEISCHMANN

문병란 MOON BYUNG RAN

송선미 SONG SEON MI

신창운 SHIN CHANG WOON

이세현 LEE SE HYUN

우승희 WOO SEUNG HEE

허백련 HEO BEAK RYEON

희망문화컴퍼니 HOPE CULTURE COOP.

목 차

목 차 1

모시는 글 2

無等shower 전시를 열면서 3

전시장 구조와 전시 배치 6

신 창 운 10

김 치 준 12

허 백 련 14

이 세 현 16

문 병 란 18

희망 문화 컴퍼니 20

우 승 희 22

디륵 플라이쉬만 24

강 미 미 26

송 선 미 28

전시연계 행사 30

전시연계 프로그램 34

작가 약력 36

cradits 41

모시는 글

드영미술관은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관 특별기획전시로 《무등샤워: 無等shower》展 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 도시 광주의 자랑 무등산을 배경으로 기획한 역사를 예술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무등산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평등이 어우러져 차등이 없는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무등(無等)의 정신을 담아 예술과 자연 간의 조화, 어울림의 장으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고, 무등의 정신 아래 '무등샤워'전은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전시로 국외, 작고, 중견, 청년작가의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시각예술, 인문학, 자연과학, 음악, 영화와 문학이 어우러진 하나의 다이나믹한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예술의 도시 광주 무등산 허백련 선생의 작품과 무등산 시인 문병란 선생의 시화로, 아카이브한 자료들도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고, 무등산에 일화가 담긴 전시들로 드영미술관에서 펼쳐지게 된 점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무등샤워: 無等shower》展 전시에 참여하신 강미미, 김치준, Dirk fleischmann, 송선미, 신창운, 우승희, 이세현, 희망문화컴퍼니 작가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전시를 통해 참여하신 관람객을 비롯한 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마음 속에 광주의 무등산이 남긴 역사를 기록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 5

드영미술관장 **김 도 영**

無等shower 전시를 열면서

드영미술관 학예실장 김수정

드영미술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특별기획전시로 《무등샤워: 無等shower》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역사의 그 자체인 '무등산'에 대한 연구와 예술로서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발 1,000m가 넘는 명산 무등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다 하여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무등산은 '등급이 없는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광주의 정신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으로 세계적 가치를 공인받았으며, 당해 9월에는 57년 만에 정상부가 개방되어 시민들 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전시는 시각예술과 문학, 음악, 영화 그리고 향(香)이 함께하며 작고 작가부터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예술인이 신선한 매체를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감각을 일깨웁니다. 신창운(1970~)은 1995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2006년 동 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인류학과 석사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수학해 온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는 현재의 삶이 과거, 즉 역사의 연속선에 있음에 집중하는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순의 본질이 밝혀지고 치유되기를 희망하는 작가는 그렇지 않은 현실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에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부터 살펴보자'는 의미로 시작된 「내 땅에서」 연작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의 색채 토분土分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금분金分을 올리고 수행하듯 긁어내는 기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노동은 시간과 함께 켜켜이 쌓여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과 시대의 상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김치준(1958~)은 오래 전부터 무등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무등산 시대정신을 새 그릇에 담아내겠다는 '빛음의 각오'가 담긴 180여 개의 물레질 된 항아리와 함께 무등산 풍혈(風穴, wind hole)에 주목합니다.

> 풍혈 : 여름에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바위틈이나 구멍. 무등산 누에봉에서 꼬막재 사이 지점(해발 900~1,000m)에서 30여 개 발견됨

1937년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정착하여 이후 평생을 무등산에서 기거한 의재 허백련 (1891~1977)은 화업을 병행하며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이 농사기술을 익히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출이작」은 '해가 뜨면 나가 일한다'는 뜻으로 농업부흥의 뜻을 품었던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전시된「허백련&무등산 사운드스케이프」는 2020년 개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이퀄리브리엄》전시를 위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재단 (前아시아 문화원)에서 기획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허백련의「일출이작」에서 추측 가능한 계절을 바탕으로 채집된 지역의 소리가 담긴 사운드작품(1′)과 경양방죽부터 춘설헌까지의 경로가 담긴 사운드워크 영상(3′42″)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진작가 이세현(1984~)은 역사적 장소와 동시대의 현장,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Boundary」연작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서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는 존재를 공중에 던지며 촬영하는데, 현재의 기록과 그 장소를 해석하는 행위가 만나며 의미 있는 '경계(Boundary)'를 형성한다하여 이같은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직접 무등산에 올라 촬영한 작업물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무등산의 다양한 바위가 가진 뜻을 스스로 해석하여 재구성된 작품에서 작가 특유의 예술적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등산의 파수꾼으로 불린 시인 서은瑞隱 문병란(1935~2015)은 한평생 자유·인권·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당시「가로수」(1960)로 등단한 그는 졸업 후 전남고등학교 등에서 국어교사로, 1988년부터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1996년에는 5·18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987년 8월 18일 뉴욕타임즈에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 시인'으로 소개된 시인은 등단 초기 서정시로 이름을 알렸지만 5·18을 겪은 후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저항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에는 그가 쓴 시를 감상하고 필사하며 그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시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2021)」,「엄마의 전화(2022)」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해오고 있는 지역의 영화제작사 희망문화컴퍼니(대표 임준형)는 이번 전시에서 단편 극영화「초련」을 보여줍니다. '초련'은 우리말로 첫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화에는 1187번 버스 등 광주시민들에게 익숙한 장면 너머로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주인공 무진(武珍: 무등산의 옛 이름)의 첫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주인공의 시한부 인생에 기적적으로 다가온 '첫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다소 익숙한 신파적인 멜로 스토리가 단순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졌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디자이너 우승희(1990~)는 사라지거나 잊혀져가는 공간에서 색감을 발췌해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등산 분청사기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무등산에는 조선 초기인 15세기 이전부터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들이 뿌리를 내렸고, 고려 말 상감청자의 맥을 잇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제작하며 '무등산 분청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무등산의 사계와 분청사기의 다양한 문양에 집중해 확장된 예술적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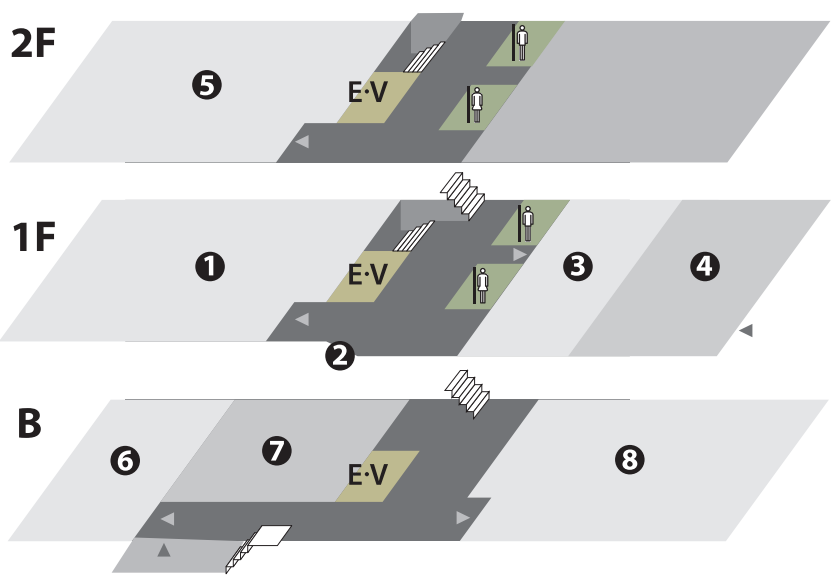
서울과 베를린에 거주하며 고대 동아시아 서예와 현대 디지털 문화가 교차하는 지속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디륵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 1974~)의 설치작품 「Breath of mudeung: An Ephemeral Support(무등의 숨결: 덧없는 지지)」는 작가의 숨을 통해 무등산의 정수가 담겨진 108개의 풍선과 두 점의 한지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선은 한지를 지지하며 무등산의 보호적 포옹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등산 여정, 그리고 설치까지의 모든 행위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고 무등산에서 전시장소인 미술관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진행되는 풍선의 점진적인 수축은 작가의 의도가 깃든 변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의 공기를 내뱉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자연의 호흡주기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조용한 인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는 강미미(1993~)는 조선 선조 때인 1574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 동안 문인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보고 들은 것을 적은 무등산 유기 '유서석록'의 내용을 보고 무등산 광주천 발원지를 찾아 나섭니다. 발원지를 마주하여 한참을 바라보던 작가는 그 주변의 드러난 흙과 뿌리를 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리고 불현듯 '시작을 쫓아왔는데 시작은 이곳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샘을 지키는 몇 안되는 나무들도 언젠가는 부스러져 흙이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하산 후 땅의 감각을 갈망하며 땅의 시선으로 그린 「드러난 뿌리, 드러난 샘」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피아노 연주학을 전공하고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선미(1978~)는 공연·예술·교육 부문의 기획 및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매개로 자연을 선물하는 그는 무등산에서 직접 채집한 세 가지의 사운드 작품을 선보입니다. 순연히 '소리'에만 집중하게 하는 「고요한 외침」 부터 클래식 악기로 표현된 자연의 소리와 쉽게 지나치게 되는 작은 소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무등산의 침묵」,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소리적 실천을 제안하는 「무등산의 침묵: 고요한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동화되게 하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동경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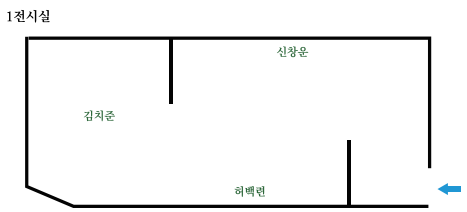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음악과 향(香) 또한 무등산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더욱 작품 감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시제목인 '무등샤워' 문자 그대로 무등산 관련 키워드로 샤워(shower)를 하는 듯, 온 몸으로 무등산을 체감하며 무등산에 대한 인식의 환기를 시키고 마음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장 구조와 전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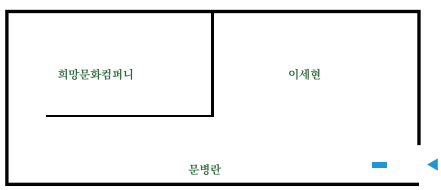
❶ 1 전시실　❷ 미술관 입구　❸ 학예연구실　❹ 연구실
❺ 2 전시실　❻ 교육실　❼ 수장고　❽ 3 전시실

제1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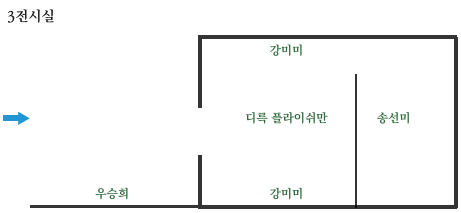


제2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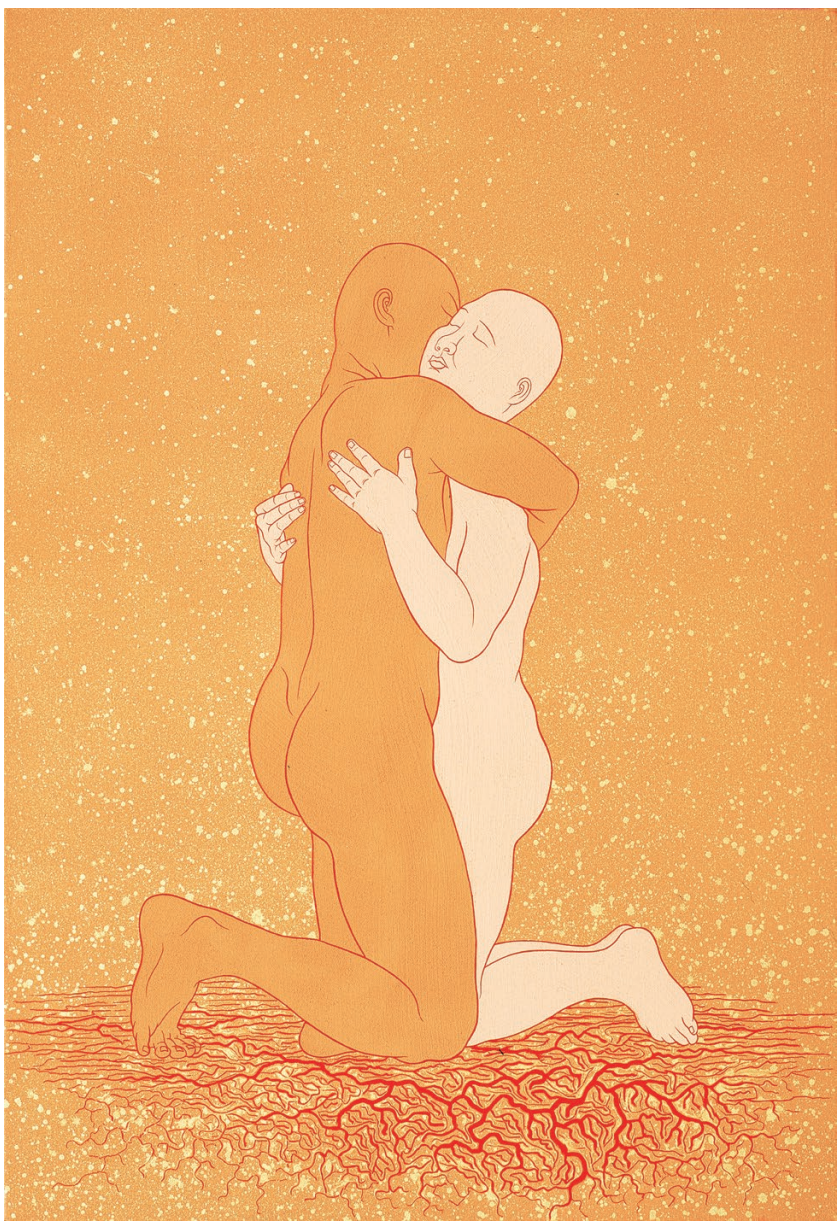
2전시실



제3 전시실



신창운 SHIN chang w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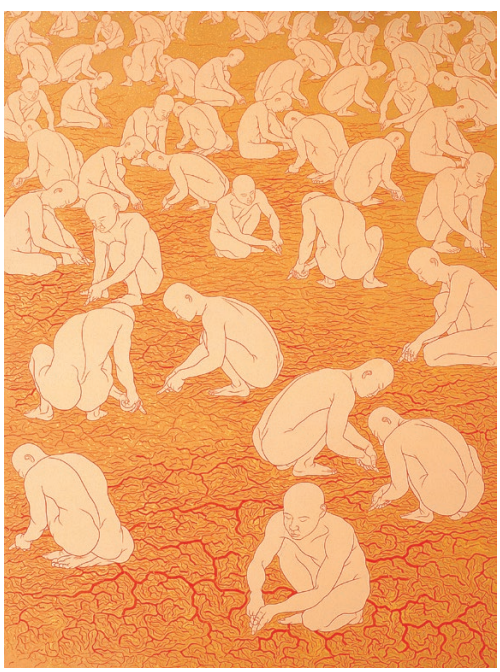


내 땅에서-포옹 2002 금분, 토분, 캔버스에 아크릴 91x65cm

현재의 삶은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반복 그리고 재구성의 총합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과거 없는 현재는 상상할 수 없으며 미래 또한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 역사, 문화, 예술은 과거와 맞닿아 있으며 그 연속선 위에 있는 것이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순(矛盾)의 본질도 밝혀지고 치유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회적 냉소(冷笑)와 의도적 회피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여기에서 크나큰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일상의 고된 삶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농부들처럼 나의 작업도 노동의 시간이 응축되길 바란다. 〈내 땅에서〉라는 연작 작품은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과 시대의 상처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의 색채 즉, 토분(土粉)과 존귀함으로 대변되는 금분(金粉)을 발라 이 땅의 농부의 마음으로 논을 갈 듯 긁어내는 기법으로 완성했다.



좌: 내 땅에서 2002 금분,토분, 캔버스에 아크릴 210x155cm

우: 내 땅에서-해찬이 2002 금분,토분, 캔버스에 아크릴 45.5x38.0cm

김치준 KIM chi jun

무등산 돌서렁 풍혈을 빚다 2024 혼합재료 가변설치

(…) 그릇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태와 란의 생명의 고리, 새로움을 빚음으로서 구태의연함을 깨는 긴 여정. 그릇은 경계이다. 안과 밖, 자연과 문명, 세포와 세포, 기관과 기관, 너와나, 모든 곳에 존재하며 언제든 관계한다. 문제는 소통이며 공명이며 자각이다. 대서사시적 통찰력 없이는 그 경계를 파악해내기 어렵다. 그릇을 기능으로만 파악하기 쉽다. 편리와 효율로 단정짓기 쉽다. 그릇은 빛과 어둠의 경계이며 삶과 죽음의 형식을 동시에 지닌 유형이며 또한 무형이다. 그럼으로써 그릇쟁이의 삶과 그릇의 행위적 관계가 동시성을 확보한다.

(…) 무등이여! 어머니여!

수억의 성상을 가로지르며
뭇 생멸을 낳고 또 기름에 어머니!
모태의 생명 살림은 바다를 향한다.

마디마디 관통하고야 도달한 씨알도
유영의 시공을 헤집고
불알에서 자궁으로 또 양수로 뛰어들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끝냈다.

누가 어미를 논하는가?
누가 생명살림을 단정 짓는가?
목말라 타들어가는 생명의 출렁임에
어머니! 어머니! 무등이여!

핏빛대지 붉게 붉게 낭자한 혈흔을 타고
생명 가득히 꽃 피우고 알곡 영근다.

하늘로 부터! 땅으로 부터!
우리의 터전과 심중을 타고 흐르는
아! 무등이여.

허백련 HEO beak ryeon

일출이작(日出而作) 1954 수묵담채 132×116㎝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937년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정착하여 이후 평생을 무등산에서 기거한 의재 허백련(1891~1977)은 화업을 병행하며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집안의 청소년들이 농사기술을 익히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출이작」은 '해가 뜨면 나가 일한다'는 뜻으로 농업부흥의 뜻을 품었던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전시된 「허백련&무등산 사운드스케이프」는 허백련의 「일출이작」에서 추측 가능한 계절을 바탕으로 채집된 지역의 소리가 담긴 사운드작품(1′)과 농업중심 사회에서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경양 방죽부터 경양방죽의 매립을 반대하였던 최흥종 목사와 허백련이 생활하였던 춘설헌까지의 경로가 담긴 사운드 워크 영상(3′42″)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品이다. 본래 화품畵品이란 것은 기교가 있은 뒤에 그 기교를 초탈한 자유의 경지에서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선인 대가들의 전통과 기교를 배우고 난 뒤라야 형상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의 자기 예술이 가능한 것이다."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의 부흥과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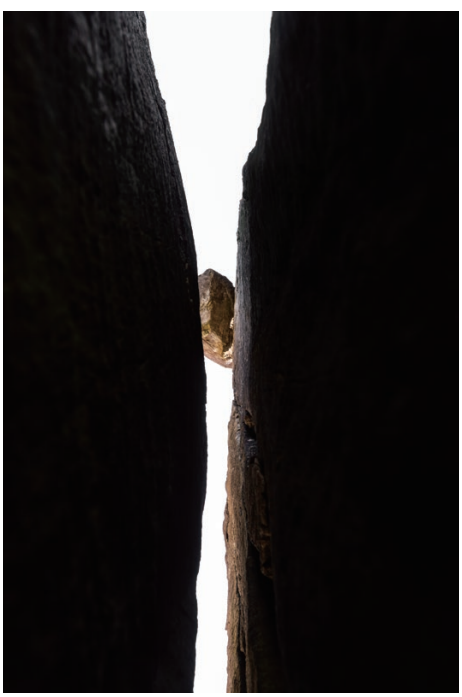
"요 몇 해 동안은 건강이 나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제자들이 병든 나를 찾아와. 아파도 나는 그들에게 춘설차 한 잔을 권하지. 차를 마시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 한 평생이 춘설차 한 모금만큼이나 향기로웠던가를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올라.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면 나는 혼자 누워서 빈손을 허공에 저어봐. 아직도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거든."

이세현 LEE se hyun

Boundary_점프 2020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0×150㎝

사진작가 이세현(1984~)은 역사적 장소와 동시대의 현장,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Boundary」연작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장소에서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는 존재를 공중에 던지며 촬영하는데, 현재의 기록과 그 장소를 해석하는 행위가 만나며 의미 있는 '경계(Boundary)'를 형성한다하여 이같은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직접 무등산에 올라 촬영한 작업물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무등산의 다양한 바위가 가진 뜻을 스스로 해석하여 재구성된 작품에서 작가 특유의 예술적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Boundary_주상절리 2020 digital pigment print 100×150㎝



Boundary_규봉암바위 2020 digital pigment print

문병란 MOON byung 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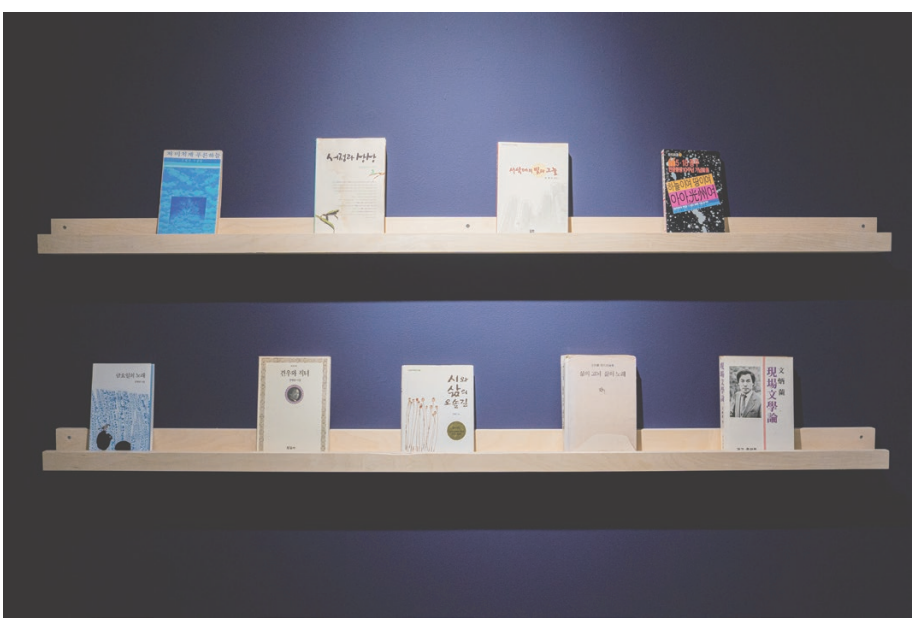
무등산 1987 시(詩), 도서, 아카이브 가변 설치

무등산의 파수꾼으로 불린 시인 서은瑞隱 문병란(1935~2015)은 한평생 자유·인권·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당시 「가로수」(1960)로 등단한 그는 졸업 후 전남고등학교 등에서 국어교사로, 1988년부터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1996년에는 5·18 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1987년 8월 18일 뉴욕타임즈에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 시인'으로 소개된 시인은 등단 초기 서정시로 이름을 알렸지만 5·18을 겪은 후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저항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에는 그가 쓴 시를 감상하고 필사하며 그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시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출발과는 달리 나의 시도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사랑·꿈·그리움,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시세계에 어느새 저항·비판·고발·증언·풍자 이런 낱말에 어울릴 반시적 반서정주의의 시를 쓰기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가인은 괴로워도 노래하고 슬퍼도 노래하고 기뻐도 노래한다. 70년대, 80년대 온통 세상은 독재로 인하여 엉망이 되고, 조국의 민주주의는 만신창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는 그 괴로운 시절에도 나는 날마다 시를 썼다.

이 땅의 민중시, 민족시는 반드시 철조망과 휴전선을 극복하고 서울과 평양과 광주와 대구를 하나로 만다는 '신들린 통일의 노래'로 발전하리라 믿어보는 것이다. 시인이 투사도 전사도 되고 혁명가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것을 믿는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한없이 미덥게 생각한다. 나도 그들의 발바닥이라도 닦아주며 내가 염원하는 민족문학의 그 길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시와 함께 민족을 안고 갈 것이다.

「무등산에 올라 부르는 백두산 노래」 1994



희망문화컴퍼니 Hope Culture Coop

「아들의 이름으로」(2021), 「엄마의 전화」(2022)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해오고 있는 지역의 영화제작사 희망문화컴퍼니(대표 임준형)는 이번 전시에서 단편 극영화 「초련」을 보여줍니다. '초련'은 우리말로 첫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화에는 1187번 버스 등 광주시민들에게 익숙한 장면 너머로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주인공 무진(武珍: 무등산의 옛 이름)의 첫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주인공의 시한부 인생에 기적적으로 다가온 '첫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다소 익숙한 신파적인 멜로 스토리가 단순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졌습니다.

무등샤워 2024 단편영화 10'25"

초련 2023 단편영화 30′2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과 함께한 여러 가지 본능 중 가장 품격 있는 본능은 사랑이리라.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고 흘러 인류의 번영과 함께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는 소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숙은 인생에서 곁에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사랑으로 여겨 그 사랑을 행하는가로 가늠해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첫사랑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어머님 품속 같은 무등산(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배경 삼아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 영화 ‘초련’의 안타까운 사랑은 예상 밖의 기적 같은 현상을 발현한다. 죽어가는 여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주변 인물들에게마저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깊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준다. 이에 주인공의 바램을 응원하는 관객들은 울고, 웃으며 ‘초련’이 만든 감동의 장으로 안내될 것이다. 추후 계획이 있다면 “무등산(문화,관광)”을 소재로 장편 극 멜로 영화를 만들어 전국 영화관에 상영을 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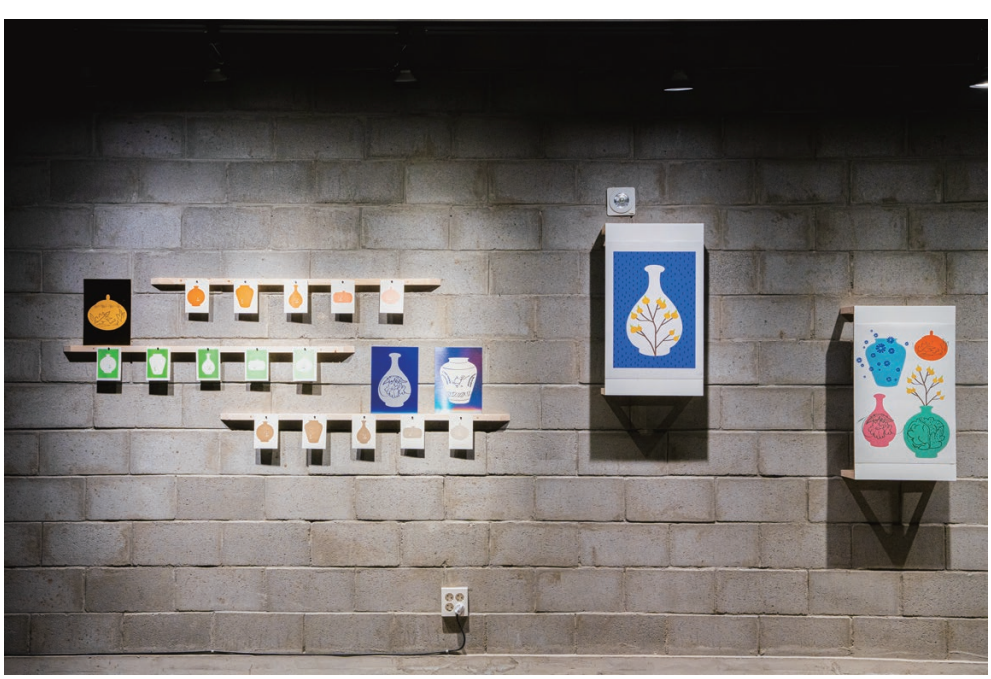
대표 임준형

우승희 WOO seoung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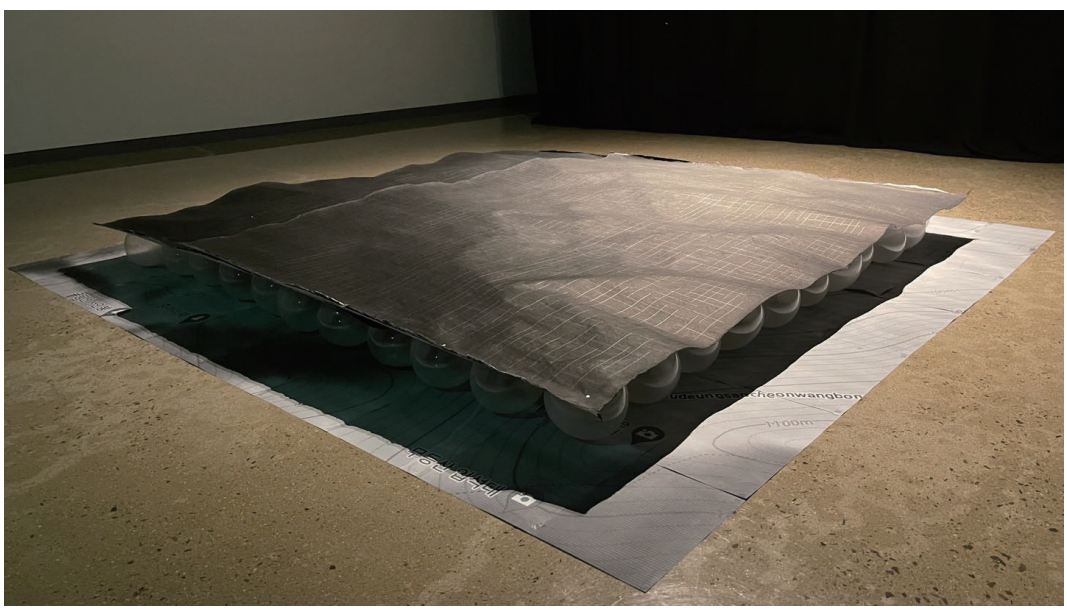
무릉도원-1 2024 리소인쇄, 그래픽디자인 59.4×42㎝

광주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우승희(1990~)는 사라지거나 잊혀져가는 공간에서 색감을 발췌해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등산 분청사기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그래픽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무등산에는 조선 초기인 15세기 이전부터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들이 뿌리를 내렸고, 고려 말의 상감청자 맥을 잇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제작하며 '무등산 분청사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무등산의 사계와 분청사기의 다양한 문양에 집중해 확장된 예술적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기억되는 어떤 공간에서 색감을 발췌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한다.
무등산 분청사기의 문양들은 대체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데 소박하면서도 따뜻하다. 기물 속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한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엄마의 품처럼 세상에 모든 것을 껴안은 듯 포근한 느낌을 주는 무등산과 많이 닮아있다.
오래된 것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기억하고 무등산의 사계절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오묘한 색감을 시각적 언어로 남기고자 했다.



디륵 플라이쉬만 DIRK fleischmann



Breath of mudeung: An Ephemeral Support 2024 풍선, 한지, 먹 가변설치

서울과 베를린에 거주하며 고대 동아시아 서예와 현대 디지털 문화가 교차하는 지속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디륵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 1974~)의 설치작품「Breath of mudeung: An Ephemeral Support(무등의 숨결: 덧없는 지지)」는 작가의 숨을 통해 무등산의 정수가 담겨진 108개의 풍선과 두 점의 한지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선은 한지를 지지하며 무등산의 보호적 포옹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등산 여정, 그리고 설치까지의 모든 행위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고 무등산에서 전시장소인 미술관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진행되는 풍선의 점진적인 수축은 작가의 의도가 깃든 변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의 공기를 내뱉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자연의 호흡주기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조용한 인사라고 말합니다.

무등산의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한 조각을 담아내었다. 산과 직접 교감하면서 무등산의 정수를 담은 공기로 108개의 풍선을 채웠으며, 각각 한국 문화 실천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에 부합하는 영적이고 명상적인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

생명의 기본적이면서도 덧없는 면인 숨결은 산의 정신과 함께 예술의 매개체가 되며, 풍선의 배열은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지지 구조에 대한 성찰을 초대함과 동시에 마치 산이 지역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무형의 것 – 무등산의 공기와 정신'을 미술 표현의 유형적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한다. 이것은 자연의 양육적 존재에 대한 찬사이며, 관람객들에게 공유된 숨결, 공유된 경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더 큰 세계와의 연결의 순간을 제공하는 초대이다.

강미미 KANG mi mi

드러난 뿌리 드러난 샘 202 캔버스에 오일 227x145cm

자신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는 강미미(1993~)는 조선 선조 때인 1574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 동안 문인 고경명이 무등산을 유람하며 보고 들은 것을 적은 무등산 유기 '유서석록'의 내용을 보고 무등산 광주천 발원지를 찾아 나섭니다. 발원지를 마주하여 한참을 바라보던 작가는 그 주변의 드러난 흙과 뿌리를 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리고 불현듯 '시작을 쫓아왔는데 시작은 이곳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샘을 지키는 몇 안되는 나무들도 언젠가는 부스러져 흙이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하산 후 땅의 감각을 갈망하며 땅의 시선으로 그린 「드러난 뿌리, 드러난 샘」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 나무 아래 돌 틈에서 솟아난 샘을 만났다. 땅을 뚫고 나오는 샘을 보고 있자니 '물은 땅도 뚫고 나오는데 땅 위를 흐르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떠나기 위한 채비를 마치고 땅 위로 솟아난 물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 450년 전 사람들이 목을 축이듯 나도 양손으로 물을 가득 담아보았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져 수면에 파동이 일었다. 물이 이야기를 건넸다. "시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시작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란다."
강의 시작을 쫓아왔는데, 시작은 이곳에 없었다. 그저 땅 위로 드러난 물과 그 옆에 드러난 뿌리가 존재했다. 올해 겨울에는 무등산의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다. 샘을 지키는 나무의 일부도 쓰러져 빈자리에 다른 나무의 뿌리가 드러났다. 남은 나무 두 줄기도 언젠가는 부스러져 흙이 될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샘을 붙잡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쌓아 놓은 돌들이 당분간은 샘을 붙잡아 둘 거다.

작은 다람쥐도 키가 큰 사람도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들을 지키는 땅이다. 나는 땅의 감각을 갈망한다. 땅의 시선으로 〈드러난 뿌리, 드러난 샘〉을 그렸다. 내 안에는 나만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한다.

송선미 SONG seon mi

무등산의 침묵: 고요한 외침을 담다 2024 사운드 가변 설치

전남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피아노 연주학을 전공하고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송선미(1978~)는 공연·예술·교육 부문의 기획 및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리를 매개로 자연을 선물하는 그는 무등산에서 직접 채집한 세 가지의 사운드 작품을 선보입니다. 순연히 '소리'에만 집중하게 하는 「고요한 외침」 부터 클래식 악기로 표현된 자연의 소리와 쉽게 지나치게 되는 작은 소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무등산의 침묵」,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소리적 실천을 제안하는 「무등산의 침묵: 고요한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동화되게 하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동경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자연적인 소리부터 차가 지나가고 커피머신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인공적인 모든 소리는 우리 주변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소리와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요소들을 연관지으며 상호작용한다. 더 나아가 시공간을 상상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리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생물과 생물, 자연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며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작품에는 남도사람들의 이정표인 무등산의 침묵, 자연의 가장 큰소리인 침묵, 고요한 외침의 소리를 담았다. 풀벌레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의 〈고요한 외침〉은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소리여정을 제공한다. 〈무등산의 침묵〉은 클래식 악기소리로 재현되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그동안 놓쳤던 무등산의 소리를 재구성하였다. 〈무등산의 침묵 : 고요한 외침〉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소리적 실천을 담고 있다. 이는 자연의 가장 큰소리인 침묵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자연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와 자연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수 있게 한다.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희망해본다.

음악 : 스윗뮤직앙상블

연주: 류혜인
이지은
이하민
정승훈
표지윤
홍빛나

사운드믹싱: 박순근

전시연계 체험

춘설차 시음

1937년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정착하여 이후 평생을 무등산에서 기거한 의재 허백련(1891~1977)은 1946년 무등산의 차밭을 사들여 삼애다원을 설립하여 춘설차를 생산하고, 삼애학원이라는 광주국민고등학교를 설립한 후 이듬해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농사기술을 배우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삼애다원의 춘설차는 광주특산물 1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재 허백련은 1946년 무등산의 차밭을 사들여 삼애다원을 설립하여 춘설차를 생산하고, 삼애학원이라는 광주국민고등 학교를 설립한 후 이듬해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농사기술을 배우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삼애다원의 춘설차는 광주특산물 1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시기간 중 정해진 일자에 춘설차를 시음할 수 있습니다.

시향

각 전시실별 전시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향(香)을 제작하여 후각으로 무등산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1전시실에서는 무등산의 흙, 나무, 바람을 테마로, 2 전시실에서는 무등산의 순백과 오월의 첫사랑 그리고 이팝나무 산책로, 3 전시실 에서는 무등산의 청량한 녹음과 꽃봉오리를 컨셉으로 하여 조향되었으며 각 층별 마련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향하실 수 있습니다.

조향 컨셉

무등산의 흙, 나무, 바람

무등산의 순백

무등산의 청량한 녹음과 꽃봉오리

오월의 첫사랑, 이팝나무 산책로

제1전시실

무등산의 흙, 나무, 바람

'사람은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태초의 움직임부터 흙과 땅, 시간이 깃들어 자리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살아있는 보고입니다.
은은한 연필심의 흑연의 향, 보드랍고 서늘한 온도로 가슴의 열을 내려주는 고택의 나무 마루, 장불재의 금빛 갈대 위로 불어오는 바람, 나무의 뿌리, 살아 숨 쉬는 축축한 흙의 냄새를 표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무등산의 정취를 향기와 함께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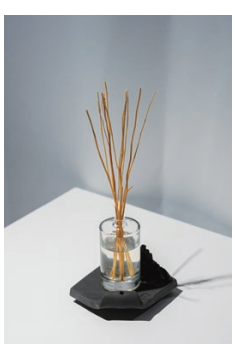
top note 감귤류의 껍질, 대나무의 결, 서늘한 바람 냄새
mdl note 전나무의 그늘, 소나무 잎, 무등산의 녹음
last note 건조한 나무껍질, 촉촉한 흙과 뿌리

제2전시실

무등산의 순백

라벤더(Lavender)의 어원은 라틴어 '씻다'라는 뜻을 가진 'Lavare'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자극과 번뇌가 팽배한 시대에서 도파민을 비워내고 본연의 '나'를 찾고자 산을 찾습니다. 서석대의 주상절리를 감싼 만년설, 무등산의 설경을 아로마틱한 라벤더 테라피를 기조로 표현하였습니다. 끝 향은 보얗고 깨끗한 비누 향처럼, 매듭짓는 향기는 파우더리한 향기, 화려한 향수에서 벗어나 자연의 향으로 몸과 마음을 씻겨 줍니다.

top note 설경의 순백, 워터리 노트
mdl note 라벤더와 로즈마리 허브, 수국, 목련
last note 무등산의 찻잎, 이슬, 이끼



제2전시실 (커튼 내부 공간)

오월의 첫사랑, 이팝나무 산책로

이팝나무는 흰 꽃잎이 마치 쌀밥의 밥알을 닮았다고 해서 5월의 광주 민주항쟁과 함께 '주먹밥'을 연상시키는 상징물로도 기억되는 나무입니다. 이른 봄 철쭉이 만개하고 나면 4월부터 광주 곳곳에 가로수로서 하얗게 만개한 이팝나무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나무 단위로 크게 만개하지만 향이 독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꽃 심지에 그린 플로럴 계열의 히아신스와 같은 향이 살짝 묻어나고, 싱그러운 생동감이 주를 이룹니다. 봄과 여름 사이를 잇는 다정한 햇살 아래 5월의 신부, 5월의 대학 새내기와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4월까지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라면, 5월은 '사랑의 계절' 이 아닐까요. 드영미술관에 오시는 길 무등산에도 이팝나무꽃이 피었습니다. 향기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op note 감귤류의 껍질, 이팝나무 꽃
mdl note 잎목련의 봉오리, 은방울꽃, 이팝나무 잎과 꽃대 줄기
last note 산책로의 햇살, 첫사랑의 샴푸향기

제3전시실

무등산의 청량한 녹음과 꽃봉오리

산은 참 다정합니다. 언제 찾아와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 향수(鄕愁)를 채워 줍니다. 무등산의 녹음과 바람은 열 찬 가슴을 쓸어내리고, 맺히고 피어나고 여무는 꽃봉오리는 곧 다가올 만개의 시간을 기대하고 미소짓게 합니다. 거대한 품 안에 안기듯 청쾌한 녹음의 품에 안기어 회복과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top note 새벽의 신선한 바람
mdl note 무등한 계곡의 청쾌함, 우거진 녹음 테라피,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허브 잎의 청량함
last note 시린 계곡의 바위틈 이끼, 꽃봉오리 줄기

전시연계 프로그램

무등 올림 축제

산수 구경 가자스라

1. [무등, 향(香) 담다] – 편백향 주머니 만들기

대상 : 성인 40명

일시 : 5.25(토)~26일(일) / 10시

이 지역의 최대 자연유산인 무등산을 '오감' 중 '후각'으로 접근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무등산 편백나무 숲의 향기를 아름다운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담아본다.

전통적인 비단 원단에 솔 바느질을 가미하여 아날로그적인 느긋함과 편백의 은은한 향을 통하여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본다.

2. [무등, 색(色)을 담다] 백드롭 페인팅

대상 : 아동 40명

일시 : 5.25(토)~26일(일) / 15시

전시 설명을 들은 후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내 마음속의 무등산이 가진 색을 설정해본다.

선택한 색과 나이프를 통해 캔버스에 나만의 무등산을 그려본다.

뮤지엄 X거닐다

작가 약력

강미미 KANG mi mi, 1993~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23년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나는 강물처럼 그린다〉 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3년 After decade(산수미술관, 광주), 그대의 세계는 안녕하신가요?(발산마을 역사문화박물관, 광주), 2022년 계림보부상–금수예술장(금수장호텔, 광주), 넛지프로젝트(예술공간집, 광주), 예술산책4–아트슈퍼마켓(해동문화예술촌, 담양), 2021년 LOCAL ARTS GWANGJU(광주극장, 광주), 2020년 NEW WAVE OF LOCAL ARTS(10년 후 그라운드,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광주), 2019년 자연 속에서 읽는 한 편의 그림(영산강문화관, 광주), 201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보성군립백민미술관, 보성), 자연(아워캔버스카페, 서울), 2014년 Young artist croquis(신세계백화점, 광주)가 있으며, 예술의 거리 레지던시(2020),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2021),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시(2023)에 참여하였고, 제29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제32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입상하였다.

김치준 KIM chi jun, 1958~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요 전시경력으로는 2023년 영산강은 나로부터 흐른다(담빛창작스튜디오, 담양), 비움은 채움의 시작(담빛예술창고, 담양), 제5회 AX(교동미술관, 전주), 2022년 제4회 AX(우진문화공간, 전주), 2021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담빛예술창고, 담양&중국 광저우), 2018 고흥 분청사기, 현대와 소통하다(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 2017년 아시아의 도시들(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년 한·중일 서예교류전(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꿈꾸는 당신(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교점–MOA매홀국제환경미술제(시화호, 화성), 너덜겅을 빚다(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2년 검은바위 흰 파도 생명의 숲(세심제갤러리, 제주)이 있다.

디륵 플라이쉬만 DIRK fleischmann, 1974~

서울과 베를린에 거주하는 그는 Hermann Nitsch의 마스터클래스에서 수학하였으며, 2002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한 Städelschule 국립미술대학에서 Meisterschüler를 취득하였다. 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2021), 티후아나 시립예술문화원(2019),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2018), 청주 공예 비엔날레(2017), 스톡홀름 모더나 뮤제(Museet, 2016), 메츠 퐁피두 센터(2016)와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UAE), 슈타이리셔 허스트(그라츠), 광주 비엔날레, 한노버 쿤스트페어라인, 서울 리움 미술관, 비엘레펠더 쿤스트페어라인, 베를린 헤벨 암 우퍼 HAU 1, 부산 현대미술관, 리옹 현대미술관, 에센 폴크방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매니페스타4 등에서 전시한 경력이 있다.

문병란 MOON byung ran, 1935~2015

전라남도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1963년《현대문학》지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가로수〉, 〈밤의 호흡〉, 〈꽃밭〉으로 등단하였다. 조선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부 문창과 교수로 2000년 8월 정년 퇴임하였고 1974년 이후 자유실천문인협회 가입, 반유신 민중문학운동에 참여,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1985년 6월항쟁 전사협 대표, 2000년 국민운동 본부대표 민주화 유공자, 5·18재단이사, 광주비엔날레이사, 부천 시온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남북 민간교류협의회 고문, 다형 문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용아 박용철 기념 사업회 이사장, 서은문학회 회장, 광주전남작가회의 자문위원, 광주문인협회에서 고문,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제2회 전남문학상(1979), 제2회 요산문학상(1985), 금호예술상(1996), 제1회 화순문학상(1997), 제1회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2000), 한림문학상(2001), 제1회 박인환문학상(2007)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송선미 SONG seon mi, 1978~

전남대학교 및 동 대학원 피아노 연주학을 전공하고 문화전문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군산대학교, 광주대학교, 남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서해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음악 교수법, 작품분석, 음악교육론, 피아노 교수법, 클레스피아노, 문화예술사, 피아노 연주학 등을 강의한 경력이 있고, 현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클래스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으며, 공연·예술·교육 스윗뮤직가든 대표 및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창운 SHIN chang woon, 1970~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2006년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거친 후 2020년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에는 인도국립현대미술관(NG-MA)에서 인턴쉽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인도 내셔널뮤지엄 인스티튜드 Indea Art&Culture 과정을 졸업하기도 하였다. 개인전은 광주, 부산, 서울, 뉴델리 등에서 18회를 진행하였고,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3년 도깨비난장(무등갤러리, 광주), 2021년 식영息影(백민미술관, 보성), 2020년 민중畵 민주化(은암미술관, 광주), 2018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6년 풍경을 보는 여섯가지 시선(오승우미술관, 무안), 2015년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광주시립미술관, 광주)가 있으며, 주요 수상이력으로는 광주신세계미술상(2003),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2006), 광주미술상(2007), 광주시립미술관(2011) 하정웅 청년작가상이 있다.

우승희 WOO seoung hee, 1990~

한국의 광주와 서울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시간의 결〉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충장22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2년 예술로 기록(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2021년 시걸이(충장22, 광주)가 있으며, 2021년에는 충장22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이세현 LEE se hyun, 1984~

2023년 Boundary(서학동사진미술관, 전주), 푸른 낮과 붉은 밤(미술중심공간보물섬, 경산), 2021년 Boundary_어떤지점(류가헌, 서울&예술지구_p, 부산), 2020년 Boundary(담빛예술창고, 담양) 등 총 18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2023년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우리가 만나는 곳(it's ready, 인도네시아), 재현과 상상의 경계(함평군립미술관, 함평), 뜻밖의 만남:인카우터(성남아트센터, 성남), 2022년 한지하우스 프로젝트2(한지하우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레지던시 경력으로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2010~2011), 2015년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일본 요코하마 코가네쵸바잘 국제레지던시(2017), 부산 예술지구p 레지던시(2021), 인도네시아 Ruang MES 56레지던시(2023)가 있으며 제6회 1019사진상(2007)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허백련 HEO beak ryeon, 1891~1977

전남 진도에서 출생, 1898년~1908년 허형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1908년에 서화연구원 출입, 1911년 메이지대학 법학부 입학 후 1년 뒤 중퇴하였고, 이후 화업에 전념하였다. 1912년~1917년 일본 남화의 대가 소실취운(小室翠雲)에게 사사받고 1919년 일본에서 귀국하였으며, 1920년 목포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22년 서울에서 동아일보 주최 개인전 제2회 선전 특전, 1927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연속 수석 입선하여 화단에 등장하였다. 1947년 농촌기술학교를 건립하고 1952년 무등산에 춘설헌을 짓고 은거, 1953년~1960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59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대한민국 문화포장(1962), 제11회 대한민국예술원상(1966), 대한민국 문화훈장금관상(1973)을 받았으며 1974년에 전남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희망문화컴퍼니(대표 임준형) Hope Culture Coop, 1968~

드라마 〈구림 첫 포위사건〉, 〈병영상인〉 제작, ㈜까투리(김밥신화), 장성군청 홍보영상, 참고깃간, 공무원노동조합(공적연금강화), 하솜면가 광고영상 제작, 연극 〈태백산맥〉, 〈검정고무신〉, 〈세일즈맨의 죽음〉, 마지막 포옹〉 외 50편, 단편영화 〈무등산 연가〉, 〈엄마의 편지〉,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노인 이야기〉, 〈엄마의 전화〉, 〈초련〉 제작, 장편 다큐멘터리 〈반성〉, 〈기억하라〉, 장편 극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하였으며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뉴욕독립영화제 액션영화상(2005), B-Movie Film Festival 촬영상(2006), (사)한국연극협회(200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연극인상(2008), 제29회 전국연극제 금상,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수상, (사)광주광역시 예총 신인문화상 수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표창장, 광주광역시 연극인상, 광주지방보훈청장 표창장, 고마나루 연극제 금상 수상(2020), 정읍 실버영화제 우수상(2023) 수상 등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희망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無等
무등샤워
SHOWER

발행일 2024. 5. 31.

발행처 드영미술관

발행인 김도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ICOM Korea)

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드영미술관

전시총괄 김도영(드영미술관장)

책임기획 김수정

협력기획 김성종

전시보조 박혜민 · 손성주

전시지원 감연규 · 전광미

작품대여 동구 문병란의 집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시음악 베이스튜디오

전시조향 조향사 국인정(아로마무드랩)

전시운송 고갑석(아트라인)

전시설치 센티아트

디자인 문화상상 · 정보영

사진촬영 아이윌즈(IWS)

드영 미술관 De Young Art Museum

61493 광주광역시 동구 성촌길 6 드영미술관 T. 062-223-6515

문화체육관광부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드영 미술관 De Young Art Museum

* 본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을 금합니다.